

# 전국 햅쌀시장 선점... 조생종 벼 재배 늘린다

## 나주시, 올해 벼 재배면적 15%까지 확대 해남군, 북일면·삼산면에 시범단지 조성

전남의 대표작인 벼 주산지인 나주시와 해남군이 전국의 햅쌀시장 선점을 위해 조생종 벼 재배에 적극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해 1720ha에 조생종 벼를 재배해 햅쌀 7440t을 생산해 30억원의 추가 농가소득을 올린데 이어 올해에는 전체 재배면적(1만3489ha)의 15%인 2000ha에 조생종벼를 재배하기로 했다.

해남군도 올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0%가 넘는 2200ha에 조생종 벼를 심기로 하고 북일면과 삼산면에 각각 20ha의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시범단지에는 해안가와 비탈 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모두 4000만원의 사업비(자부담 30%)를 투입해 종자와 비료, 농자재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올해 추석 전인 8

월말에 고품질의 햅쌀을 수확할 수 있도록 적정 주수 재배, 시비관리,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이들 시군이 조생종 벼 재배 확대에 나선 이유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 피해를 줄이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햅쌀을 생산해 조기출하함으로써 전국 햅쌀시장 고객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생종 벼는 일반벼에 비해 통상 40kg 가마당 1만원의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45%를 점유하고 있어 미나리 재배를 위해 조생종 벼 재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에 적



최근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에서 실시된 첫 모내기 장면. 나주에서 미나리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조생종 벼 재배가 이뤄지기도 한다.

합한 품종인 대봉, 운광, 조평벼 등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해 공급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8월말에서 9월

초 태풍피해가 많은 만큼 재배에 대비하고 조기수확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생종 벼 재배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 RPC와 계약재배를 추진

하고 브랜드쌀인 '땅끝햅쌀'과 연계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해남=박희석기자 dia@

# 신안에 장애인전용 리프트카 떴다 郡, 이동편의 제공 서비스 '천사콜' 시승식

신안에서 장애인전용 리프트 차량 운행이 시작했다.

신안군은 지난 14일 박우량 신안군수와 양영모 신안군의회 의장, 김기철 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사콜(1004콜) 차량 시승식을 가졌다. <사진>

천사콜 차량은 장애인전용 리프트 차량으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이동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지회에서 운영을 맡아 목포시 경계로부터 3km 이내와 삼향면 남악지역에서 운행한다.

정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다만 긴급상황시에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자는 교통약자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수시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게 돼 기쁘다"며 "보호자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양과 전용 비료 무안군 개발 추진 남해화학과의 협약 체결

무안군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양과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전용 비료 개발에 나섰다.

전용비료 개발은 비료전문 생산업체 남해화학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된다.

무안군은 15일 양과 연작장에 해소와 양과품질 향상을 위해 남해화학과의 양과 전용비료 개발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양과 저장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양과 실증연구와 재배 등을 수행하고 남해화학은 토양과 생산된 양과 성분 등을 분석, 3년 안에 전용 비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양과 실증재배 과정에서 칼슘과 유효를 함유한 비료를 사용한 결과 토양내 미생물 활성화, 양과 당도 증가, 저장성 향상, 병해 감소 등 효과가 큰 것을 확인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양과 전용비료를 개발, 농가에 보급하면 연작 장애 감소, 양과 브랜드 가치 상승, 농가소득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전남 연안 대하 종묘 2000만 마리 방류

## 고흥·해남 등 8개 해역에... 어가 소득 증대 기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 연구센터가 전남 연안의 대표적 갑각류 자원 중 경제 가치가 가장 높은 대하 종묘를 자체 생산해 16일부터 방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남도 내 대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대하 생산량은 102t이었으나 지난해 37t으로 줄었다. 이번 방류행사는 연안 자원을 조성

하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고흥, 해남, 영광, 함평 등 7개 군 8개 해역에서 이뤄지며 어린 대하 2000만 마리가 방류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전남도 국제갯벌연구센터가 지난 4월 고흥해역에서 포획한 어미대하(160마리)를 김혜선 연구사가 30여일간 연구소에서 부화·관리한 것이다. 평균 크기가 2cm로 연안 해역에 방류 시 생

존율 및 성장 속도가 높아 1년 이내에 체중 40g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하가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습성을 감안하면 이번 방류로 20억원 상당의 어업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최연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하반기에도 민어 수정란 방류, 보리새우, 바다(새대), 주꾸미, 낙지 종묘생산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 회순 힐링푸드축제 오늘 개막 고인돌 선사체험 등 행사 다채

회순 힐링푸드축제가 16일 회순 하니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16일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건강한 음식! 맛의 향연!'을 주제로 다양한 건강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향토음식, 다문화음식 등 판매 행사, 힐링푸드 요리교실, 건강체험관, 힐링놀이 등 체험행사, 전

국 힐링요리경연대회, 우리가족 맛사랑대회 등 공연행사, 전국등산대회, 고인돌 선사체험 등 부대 행사로 구성됐다. 16일 회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는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대회가 열린다.

'엄마의 밥상', '군대의 추억', '최척폭폭 기차여행', '학교 앞 문방구', '시골벽적 시골장터 음식' 등

추억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관도 마련됐다.

17일 낮 12시 회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서는 450여명에게 음식과 공연을 함께 선보이는 '가장 긴 점심식사' 행사가 마련됐다.

축제 기간 정찬주 소설가, 연예인 이정섭씨, 가수 진미령씨 등이 참여하는 북 콘서트와 요리 시연도 펼쳐진다. /회순=조성수기자 css@

#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전남도, 투명·공정성 강화

전남도가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설계와 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 심사제도의인 '사입수행능력(PQ·Pre-Qualification)'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설계PQ는 용역업체의 실적과 보

유 기술자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설계 PQ의 일부 평가기준 등이 '특정 업체에 편향된다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PQ 세부평가

방법'을 발주청 사업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정하고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특혜시비 차단을 위해 평가 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의 견수후 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했다. 또 평가 공정성을 위해 발주청은 설계, 감리, PQ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내용,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이번에 도로·하천·항만·상수도·도시계획·도시개발 등 설계 8개 분야, 감리 5개 분야 100여개 항목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서남해안 최선에 경비함정 배치

43억원을 들여 건조한 이 경비정은 1800마력 주기관 2대, 최첨단 레이더, 위성항법 항해장비 등을 탑재하고 최대 속력은 35노트(시속 60Km)다.

전남 서남해에 50t급 최선예 경비함정(P-66정)이 15일 배치됐다. 해상치안 수호에 신속히 대처하고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원도해경 제공>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외벽 시공사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ielysia

16일 OPEN

우리  
한번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